

# 영어성경과 한글성경의 어휘 비교연구

이 현 근  
〈실용영어학과·조교수〉  
hyunklee@kbtus.ac.kr

## 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영어성경과 한글성경의 어휘들을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NIV 영어성경과 개역개정판 한글성경에 나타난 어휘들을 형태론적(Morphological)인 면과 개념·의미론적(Conceptual & Semantic)인 면에서 비교·분석하려 한다.

단어는 형태(form)와 의미(function)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휘의 체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형태론적인 면에서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등의 어휘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념·의미론적인 면에서 각각의 언어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의미 체계를 파악한 후, 두 언어의 개념체계가 보이는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모든 어휘는 명사 위주로 두 성경에서 선택하였다. 한 가지 명확히 언급할 것은 본 논문은 신학적인 고찰이 아니라 언어학적인 고찰이라는 점이다. 즉 대상 어휘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찾는 것은 본 논

문의 한계를 벗어난다.

제 II 장에서는 언어학적으로 배경이 되는 이론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어휘를 형태론적으로 분류하는 기본 방법을 제시하고, 개념·의미론적인 면에서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과 명칭론(Onomasiology)을 간략히 서술하겠다.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제 III 장에서는 영어성경과 한글성경에 나타난 단어들이 형태론적으로 어떻게 사상(mapping)되는가를 비교하겠다. 제 IV 장에서는 두 언어의 합성어를 개념·의미론적인 면에서 비교하여 유사성과 상이성을 찾으려 한다. 그리고 제 V 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 II. 언어학적 배경 이론

본 장에서는 본 논문의 언어학적 배경이 되는 두 가지 이론을 소개하려 한다. 하나는 형태론에서 어휘를 분류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개념·의미론과 관련된 이론인 인지언어학과 명칭론이다.

첫째, 어휘를 형태론적 생성과정에 따라 분류<sup>1)</sup>하면 다음과 같다.

### (1) 어휘의 형태론적 분류

- a. 단일어(simple word)
- b. 복합어(complex word)
  - i. 파생어(derivative)
  - ii. 합성어(compound)

(1)의 분류법은 굴절(inflexion)을 제외하고 어휘를 단어형성과정에 따

---

1) 김영석, 「영어형태론」(서울: 한국문화사, 2010), 49.

라 분류한 것이다. 단어는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뉘고, 복합어는 다시 파생어미가 첨가된 파생어와 두 개 이상의 단일어가 결합한 합성어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단일어에 비해 파생어와 합성어가 의미를 파악하기 수월하다. 그 이유는 어휘 구성성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논문의 개념·의미론적인 면의 바탕이 되는 두 이론은 인지언어학과 명칭론이다. 인지언어학은 George Lakoff<sup>2)</sup>와 Ronald Langacker<sup>3)</sup>가 주도하고 있는 이론으로 “인간의 언어능력과 일반적인 인지능력은 통합되어 있으며, 의미는 개념화와 동일시되고 신체화된 경험과 관계된다고 본다.”<sup>4)</sup> 인지언어학의 선행 연구로 영어 합성어 ‘horseshoe<sup>5)</sup>’가 각 언어에서 다르게 구현되는 모습을 (2)와 같이 제시한 것이 있다. 한국어에서는 이를 ‘편자’ 또는 ‘말발굽’이라 하며, 이는 저자가 추가한 것이다.

## (2) ‘horseshoe’의 각 언어별 구현

- |                       |                       |
|-----------------------|-----------------------|
| a. horseshoe(영어)      | 〈말〉〈신발〉 <sup>6)</sup> |
| b. fer à cheval(프랑스어) | 〈쇠〉〈위한〉〈말〉            |
| c. Hufeisen(독일어)      | 〈발굽〉〈쇠〉               |
| d. 편자(한국어 한자어)        | 〈납작한 조각〉〈물체〉          |

2) George Lakoff, *Woma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3) Ronald W. Langacker,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P, 1987).

4) 노명현, 「의미론 개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2), 342.

5) René Dirven and Marjolijn Verspoor, *Cognitive Exploration of Language and Linguistics*, 2nd ed. (Amsterdam: John Benjamins, 2004), 15.

6) 〈 〉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부호이다. 개념은 어휘로 정착되기 이전 단계로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며, 기호화된 후에는 의미와 유사하게 사용된다. 개념은 기호화되어 어휘체계 안으로 들어오나, 기호화되지 않은 개념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김봉주, 「개념학: 의미론의 기초」 (서울: 한신문화사, 1988).

e. 말발굽(한국어 한글) <말><발><굽(굽은 것)>

말발굽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굽바닥에 장착하는 U자형의 쇠붙이를 영어에서는 ‘horseshoe’라 하는데, 이는 <말 신발>의 뜻을 갖는다. 같은 대상물이 프랑스어에서는 <말을 위한 쇠>, 독일어에서는 <발굽쇠>, 한국어에서는 <납작한 조각체> 또는 <말발굽(에 다는 쇠)>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동일한 대상물을 각 언어별로 다르게 개념화하고 그에 따라 기호화하였다. 하나의 대상물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은 명칭론(혹은 표현론)<sup>7)</sup>과 연관성을 갖는다. 명칭론은 하나의 개념이 어떻게 다양하게 어휘화되는지를 연구하는 이론이다. 이는 어의론(Semasiology)과 대조되는데, 어의론은 한 어휘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찾아 가는 이론이다. Geeraerts<sup>8)</sup>에 따르면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칭론에서는 “개념 x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어휘가 사용되었는가?”를 묻고, 어의론에서는 “어휘 y는 무슨 의미를 표현하는가?”라고 묻는다.

(3) 명칭론과 어의론

명칭론적 입장: 개념(의미) -----> 언어(어휘)

어의론적 입장: 언어(어휘) -----> 개념(의미)

대상물의 이름을 붙이는 명명과정은 명칭론의 핵심중 하나이다. 대상물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을 선택하여 명명하는 방식은 지금도 사용되고

7) 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현근, “명칭론(Onomasiology)과 어의론(Semasiology),” 임지룡 외 38인, 「인지언어학 탐구의 현황과 과제」(서울: 한국문화사, 2019), 699-722.

8) Dirk Geeraerts, *Diachronic Prototype Seman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17.

있다. 대상물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을 이름으로 선정해야 기억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이다<sup>9)</sup>. 영어성경과 한글성경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원전을 각각 번역한 것이므로, 서로 대응되는 어휘를 명칭론적 입장에서 어떻게 개념화(어휘화)되었는지 비교·분석할 수 있다.

### III. 어휘의 형태론적 비교

본 장에서는 영어성경과 한글성경의 어휘들을 형태론적인 면에서 비교하겠다. 즉 두 언어에 나타난 단일어부류와 파생어와 합성어를 포함한 복합어부류가 어떻게 서로 대응되는지 비교분석하려 한다. 그 중에 영어 합성어와 그것의 한국어 합성어 대응형은 다음 장에서 다루겠다.

#### 1. 한국어 단일어 vs. 영어 단일어

한국어와 영어가 서로 단일어로 대응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물론 한 언어의 단일어와 그에 대응되는 다른 언어의 단일어가 완벽하게 동등하지 않음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sup>10)</sup>. 즉 어떤 단일어가 다른 언어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동일한 맥락 속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한국어와 영어가 단일어로 대응되는 예를 보자.

9) 명명과 관련된 것으로 창세기 2장 19-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냐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가 있다. 아담이 동물들의 특성에 따라 이름을 지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 김봉주, 「개념학: 의미론의 기초」(서울: 한신문화사, 1988), 245-7; 이보림, “성경 어휘의 번역과 등가성에 관한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9권 3호 (2018): 35-56.

(4) 한국어 한글 단어	vs.	영어 단어
a. 눈		eye (신 3:27)
b. 떡 <sup>11)</sup>		bread (창 27:17, 마 4:4)
c. 새		birds <sup>12)</sup> (창 1:20)
d. 아들		son (마 1:21)
e. 풀		grass (신 11:15)
f. 벰엘		Bethel (창 28:19)
g. 아담		Adam (창 2:25)
h. 예수		Jesus (마 1:21)

(4a-e)는 한국어에서 순수 한글로 된 단어어들이다. 단어의 경우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그 기원과 유래가 있었을지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 그래서 후대의 언어 사용자들은 이러한 단어를 자의적(arbitrary)이라 한다.

그런데 (4f-h)는 외국어와 외래어의 구분이 필요하다. (4f)의 ‘벰엘’처럼 외국어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와, (4g)의 ‘아담’처럼 한국어화 된 외래어가 있다. 전자의 예로 ‘에벤에셀, 라가,’ 후자의 예로 ‘아브라함, 다윗, 만나’ 등이 있다. 특히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벰엘’은 히브리어에서 두 개의 자립형태소가 합쳐진 합성어에 속하나,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합성어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도입되어 사용되는 점이 흥미를 끈다. 나중에 ‘벰엘’의 히브리어 연구를 통해 이들이 합성어임을 한국어 화자가 알게 되

11) 한국어로는 주식인 ‘떡’이라 하고, 영어로는 ‘bread(뽕)’이라 하고 있다. 이는 단어의 미가 사회문화적인 요소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인다.

12) 복수형에 대한 부분은 본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다. 언어관습적으로 영어에서는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는 것을 중시하나, 한국인들은 이것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영어표현은 복수형이나 한국어표현은 단수형으로 되는 경우는 많이 있다.

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한국인 화자들은 단일어로 간주한다. (4h)의 ‘예수’라는 용어도 외래어이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예수님’이라고 하여 높임을 뜻하는 파생어미 ‘-님’을 붙여 쓴다. 즉 한국어 ‘예수’는 외래어 단일어이고, ‘예수님’은 외래어 파생어이다. (4)와 같은 단일어들을 양 언어 간에 의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 측면에서 볼 때 무의미(meaningless)하다.

(4)의 예는 모두 순수 한글이었으나, 다음의 (5)는 한자어인 경우이다.

(5) 한국어 한자 단일어	vs.	영어 단일어
a. 금(金)		gold (창 2:11)
b. 사자(獅子) <sup>13)</sup>		lion (히 11:33)
c. 왕(王)		king (마 2:2)
d. 포도(葡萄)		grape (창 40:11)

표음문자인 한글에 비해 표의문자인 한자어는 각각의 글자가 의미를 품고 있으므로 전체 의미를 파악하기가 수월한 편이다. 예외적으로 (5d)의 포도는 한자어가 있었는지 인식하는 경우가 드물고, 한자어의 뜻도 어렵다.

(4)와 (5)처럼 한국어와 영어가 단일어끼리 대응되는 것이 가장 많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본 논문에서 이들을 다 수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단일어들의 의미를 서로 비교분석하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측

13) 한자가 포함된 한국어 어휘는 단일어와 합성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김일병(2000:222-1)은 ‘모자, 탁자, 과자’ 등을 단일어로 간주하고 있고, 동식물어도 단일어로 본다. 반면에 최형용(2018:68-9)은 ‘백부(伯父), 두상(頭上), 치아(齒牙)’ 등을 어근이 두 개씩 합쳐진 합성어로 간주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식물명은 단일어로 보고, 그 외의 대부분의 두 음절 이상의 한자어는 합성어로 간주한다. 후자는 신고전적 합성어로 부르기도 한다 (각주 14를 참조할 것).

면에서 볼 때 논의할 가치가 적다.

## 2. 한국어 단일어 vs. 영어 복합어

한국어에서는 단일어이고 영어에서는 파생어나 합성어로 대응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다. 다음의 (6)을 보자.

(6) 한국어 단일어	vs.	영어 파생어
a. 복 (시3:8)		blessing bless + -ing <축복하다><명사접미사>
b. 의 (요 16:10)		righteousness right + -ous + -ness <옳음><형용사접미사> <명사접미사>
c. 허물 (사 53:5)		transgression transgress <sup>14)</sup> + -ion <넘어가다><명사접미사>

(6a)의 ‘blessing’은 동사 ‘bless’에 명사어미 ‘-ing’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6b)의 ‘righteousness’는 명사 ‘right(올바름)’에 형용사 파생 어미 ‘-ous’가 결합한 후, 다시 명사 파생 어미 ‘-ness’가 결합하였다. (6c)에

---

14) ‘transgress’를 합성어의 일종인 신고전적 합성어(neoclassical compound)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고전적 합성어는 라틴어나 고대 그리스어 어근을 가져다가 단어를 만드는 것을 가리키며 ‘geo+logy, photo+graph’ 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Laurie Bauer, “Is there a Class of Neoclassical Compounds, and if so is it Productive?” *Linguistics* vol. 36 (1998): 405.



서 ‘transgression’은 ‘transgress’에 명사 파생 어미 ‘-ion(tion)’가 결합하였다. 동사 ‘transgress’도 실은 라틴어 ‘trans(넘어서)’와 ‘grass(걷다/가다)’가 합쳐진 것이다. 결국 ‘transgression’의 의미는 <제한된 규정을 넘어가는 것>이다.

다음은 한국어 단일어가 영어에서는 합성어가 되는 경우이다.

(7) 한국어 단일어	vs.	영어 합성어
a. 뜰 (눅 22:55)		courtyard 〈뜰/법정〉〈마당/운동장〉
b. 사위 (삼상 18:18)		son-in-law <sup>15)</sup> 〈아들〉-〈~안에〉-〈법〉
c. 형 (창 10:21)		older brother <sup>16)</sup> 〈나이가 더 많은〉〈형제〉

(7a)의 ‘뜰’은 영어로 ‘courtyard’인데 <뜰마당>이란 의미가 들어 있다. (7b)의 ‘사위’는 영어로 ‘son-in-law’라 하며, 이는 하이픈이 포함된 합성어이다. ‘사위’의 영어 의미는 <법안에 있는 아들> 즉 <법적인 아들>이다. 영어 친족어는 한국어만큼 풍성하지 않다. (7c)의 한국어 친족어 ‘형’은 영어에서는 손위 손아래를 구분하지 않고 ‘brother’라 하며, 손위 형을 정확하게 표현할 때만 ‘older/ elder’를 추가한다. 여기에는 비교급 어미 ‘-er’가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단일어와 그에 대응하는 영어 복

15) ‘daughter-in-law 며느리 (마 10:35),’ ‘mother-in-law 시어머니(룻 1:14)/ 장모 (마 10:35),’ ‘father-in-law 시아버지 (창 38:13)/ 장인 (요 18:13)’도 같은 형태를 취한다.

16) 영어의 ‘brother’는 형과 동생을 모두 아우르는 어휘이다. 창세기 4:2에서 남동생인 아벨은 ‘brother’로 표기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어에서는 ‘형’과 ‘동생’을 엄격히 분리하여 말하는데, 이는 서열을 중시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인한다.

합어를 비교하였다.

### 3. 영어 단어 vs. 한국어 복합어

영어의 단어가 한국어에서 파생어나 합성어로 되는 예를 본 절에서 다루려 한다. 먼저 영어 단어가 한국어 파생어로 대응되는 경우를 보자.

(8) 영어 단어	vs.	한국어 파생어
a. faith (히11:1)		믿음 믿다 + -ㅁ 〈believe〉〈-ing〉
b. Gentile (행 10:45)		이방인 이방 + -인(人) 〈foreign country〉〈person〉
c. theft (막 7:21)		도둑질 도둑 + -질 〈thief〉〈doing〉

(8a)에서 한국어 ‘믿음’은 ‘믿다’라는 동사에 명사파생어미 ‘-ㅁ’이 결합한 것이며, 〈믿는 것〉을 뜻한다. (8b)의 ‘이방인’은 〈외국/다른 나라〉에 사람을 뜻하는 파생어미 ‘-인’이 합쳐진 것이다. (8c)의 한국어 ‘도둑질’은 〈도둑이 하는 짓(훔치는 것)〉을 뜻하며, ‘-질’은 좋지 않은 행동을 뜻하는 파생접미사로서 ‘쌈질, 군것질, 샷대질’ 등에도 사용된다.

다음의 (9)처럼 영어는 단어이거나 한국어는 합성어인 예를 상당히 찾을 수 있었다.

(9) 영어 단어	vs.	한국어 합성어
a. belt (엠플 6:14)		허리띠 〈waist〉〈band/belt〉
b. lamp (레 24:2)		등잔불 〈lampbowl〉〈light〉
c. the Lamb <sup>17)</sup> (요 1:29)		어린 양 〈young〉 〈sheep〉
d. lie (갈 1:20)		거짓말 〈lie〉〈word〉
e. palm (레 14:15)		손바닥 〈hand〉〈bottom〉
f. spring (민 33:9)		샘물 〈spring〉〈water〉

(9a)의 경우 영어 단어 ‘belt’는 한국어에서 ‘허리’와 ‘띠’가 합성된 ‘허리띠’ 또는 한국어 외래어인 ‘벨트’로 대응된다. (9b)의 영어 표현 ‘lamp’는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램프, 등잔, 등불’ 등으로 번역되는데, 여기서는 한국어 합성어인 ‘등잔불’이 되었다. (9c)에서 ‘어린 양’의 자구적 의미는 〈양 중에서 어린 것〉 즉 〈새끼 양〉을 말한다. 성경에 쓰인 ‘the Lamb(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용어로 특수화된 경우이다.

17) 영어에서는 ‘ram(숫양), ewe(암양), lamb(새끼 양)’처럼 각각의 단어가 존재한다. 이에 비해 한국어에서는 ‘숫양’과 ‘암양’은 파생어이며, ‘새끼 양(어린 양)’은 본래 명사구이다. 명사구가 특정한 범위로 한정되면 합성어가 된다. 성경에서는 의미가 더욱 특수화되어 예수님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용어가 세분화되었다는 것은 그 문화권에서는 그 용어들을 중요시한다는 방증이다. 즉 영어권에서는 ‘양’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각각의 단언어로 어휘화 하였으나, 한국어권에서는 양과 관련된 문화가 많지 않아서 그에 관련된 단언어가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파생어, 합성어 등을 활용하여 표기한다.

이를 위해 정관사 ‘the’를 넣고 첫 번째 철자를 대문자로 표기하였다. (9d)의 ‘거짓말’은 ‘거짓’과 ‘말’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9e)의 ‘손바닥’은 ‘손’과 ‘바닥’이 합성된 것이다. 참고로 ‘손등’은 한국어에서 합성어로 단어에 속하나, 영어는 명사구 ‘(the) back of one’s hand’로 표기한다. (9f)의 ‘spring’은 일반적으로 ‘샘’이라 하나, 한국어 성경은 ‘샘물’이라 하여 보다 세밀한 의미를 전달한다. 이처럼 합성어가 되면 단일어보다 의미의 투명도가 높아진다. 영어의 단일어가 한국어에서 합성어로 대응되는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조금 많았다.

III.2와 III.3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 단어를 대하는 사람에게 단일어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단 그 의미를 파악한 후에는 빠르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파생어나 합성어는 단일어를 기초로 만들어지므로, 처음 보더라도 의미파악이 수월하며 기존의 어휘를 사용하므로 경제적이다. 단점으로는 단일어에 비해 글자 수가 많아지는 불편함이 있다.

#### 4. 영어 복합어 vs. 한국어 복합어

복합어는 제 2장에 제시한 바와 같이 파생어와 합성어로 구성되는데, 본 절에서는 영어와 한국어가 복합어인 경우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양 언어가 모두 합성어인 경우는 다음 장에서 제시하겠다.

(10) 영어 파생어	vs.	한국어 파생어
a. christian (행 11:26)		그리스도인
christ + -ian		그리스도 + -인
<그리스도><사람 <sub>명사접미사</sub> >		<christ><person>
b. flogging (히 11:36)		채찍질

flog + -ing	채찍 + -질
<채찍질하다> <명사접미사>	<whip> <doing>
c. guardian (행 19:35)	신전지기
guard + ian	신전 + -지기
<지키다/경계하다> <사람명사접미사>	<temple> <guard>
d. liar (요 8:44)	거짓말쟁이
lie + -er	거짓말 + -쟁이
<거짓말> <사람명사접미사>	<lie> <person>
e. wickedness <sup>18)</sup> (벧후 2:15)	불의
wicked + ness	불- + 의
<사악한> <명사접미사>	<not> <righteousness>

(10)은 영어와 한국어가 모두 파생어인 경우이다. (10a)에서 ‘christian’은 명사 ‘christ’에 사람을 뜻하는 어미 ‘-ian’이 더해진 것이며, ‘그리스도인’도 그러하다. (10b)의 ‘flogging’은 동사 ‘flog’에 명사형 어미 ‘-ing’를 부가한 것이다. 한국어 ‘채찍질’은 ‘채찍’에 파생접미사 ‘-질’을 부가하였다. (10c)에서 ‘guardian’은 그냥 <지키는 사람>이지만, ‘신전지기’는 <신전을 지키는 사람>이라 하여 의미가 구체적이다. (10d)의 ‘liar’에는 사람을 뜻하는 명사어미 ‘-er’가 있다. ‘거짓말쟁이’는 합성어 ‘거짓말’에 파생접미사인 ‘-쟁이’가 부가된 것이다. (10e)의 ‘wickedness’는 형용사 ‘wicked’에 명사파생접미사 ‘-ness’가 합쳐진 것이다. ‘불-’은 한국어 파생접두사로 ‘불구속, 불합리’ 등에도 사용된다.

영어는 파생어이고 한국어는 합성어인 용례는 다음과 같다.

18) ‘wickedness’는 한국어에서 ‘불의 (롬 1:18)’ 외에도 ‘악 (전 3:16), 악행 (렘 44:9), 불법 (마 24:12), 죄악 (미 3:10)’ 등 여러 가지로 대응된다.

(11) 영어 파생어	vs.	한국어 합성어
a. blasphemy		신성모독 (마 26:65, 요 10:33)
blaspheme + -y		<divinity><blasphemy/insult>
<모독하다><명사접미사>		
b. commandment		계명(誡命) (마 19:17)
command + -ment		<keep><life/command>
<명령하다><명사접미사>		
c. endurance		오래 참음 <sup>19)</sup> (딤후 3:10)
endure + -ance		<long> <endurance>
<참다><명사접미사>		
d. forgiveness		죄 사함 (행 10:43)
forgive + -ness		<sin> <forgiveness>
<용서하다><명사접미사>		
e. preaching		전도(傳道) (눅 11:32)
preach + -ing		<preach><way>
<전도하다><명사접미사>		

(11a)의 영어 ‘blasphemy’는 동사 ‘blaspheme’에 명사어미 ‘-y’가 결합되어 파생어가 되었고, 한국어 합성어 ‘신성모독’은 ‘신성’과 ‘모독’이 합쳐졌다. 한국어는 <신의 성품에 대한 모독>이라 하여 영어표현보다 명확한 뜻을 갖고 있다. (11b)의 ‘commandment’는 동사 ‘command’에 명사어미 ‘-ment’가 부가되어 생성되었다. (11c)에서 ‘endurance’는 ‘endure’라는 동사에 명사어미 ‘-ance’가 부가되었고, 이는 한국어에서 ‘오래 참음’이나 ‘인내’로 대응된다. ‘오래 참음’은 합성어로서 영어와 달리 ‘오래’라는 개념

19) ‘forbearance (갈 5:22),’ ‘patience (골 3:12; 히 6:12)’도 ‘참음’으로 대응되고 있다.

이 첨가되어 있다. ‘참음’은 동사 ‘참다’에 명사 파생 어미 ‘-ㅁ’이 합쳐진 것이다. (11d)의 영어 ‘forgiveness’는 <용서함/ 용서하는 것>이란 의미이고, 한국어 ‘죄 사함’은 영어 표현 보다는 명시적으로 ‘죄’부분을 기호화하였다. (11e)에서 ‘preaching’은 명사파생어미가 결합하여 <전도하는 것/ 전도하기>라는 뜻을 갖는다. 한국어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이다.

영어는 합성어이고 한국어는 파생어인 경우가 다음과 같이 다수 존재하였다. (12a-d)의 한국어 예에는 파생접두사가 들어 있고, (12e-h)에는 파생접미사가 들어 있다.

(12) 영어 합성어	vs.	한국어 파생어
a. he-goat		숫염소 (잠 30:31)
<남성 <sub>3인칭 단수</sub> >-<염소>		수- + 염소
		<male's><goat>
b. high priest		대제사장 (히 6:20)
<높은> <제사장>		대- + 제사장
		<big><priest>
c. pure gold		순금 (출 25:11)
<순수한> <금>		순- + 금
		<pure><gold>
d. wild animal		들짐승 (막 1:13)
<야생/거친> <동물>		들- + 짐승
		<field><animal>
e. blood relative		살붙이 (레 25:49)
<피> <친척>		살 + -붙이
		<flesh><stick/attachment>

f. hired servant	폼꾼 (눅 15:17)
〈고용된〉 〈일꾼〉	폼 + -꾼
	〈labor/work〉〈person〉
g. sabbath year	안식년 (레 25:6)
〈안식〉 〈해/년〉	안식 + -연
	〈sabbath/rest〉〈year〉
h. synagogue leader	회당장 (행 18:8)
〈회당〉 〈지도자〉	회당 + -장
	〈synagogue〉〈chief〉

(12a)에서 ‘he-goat’는 ‘goat(염소)’에 남성 3인칭 단수 대명사 ‘he’를 결합한 것이며, 하이픈을 넣어야 하는 합성어이다. ‘숫’은 남성을 뜻하는 ‘수’에 사이시옷이 들어있는 형태이다. (12b)의 ‘high priest’는 합성어로 〈높은 제사장〉이란 뜻이고, 파생접두사 ‘대-’가 들어 있는 ‘대제사장’은 〈큰 제사장〉이란 뜻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에 파생어미 ‘-장’이 합쳐진 파생어이다. (12c)의 ‘pure gold’는 순도가 높은 〈순수한 금〉을 말하며, 한국어 ‘순금’도 비슷한 뜻이다. (12d)의 ‘wild animal’은 〈야생(들)의 거친 짐승〉이고, ‘들짐승’은 〈뜰에 사는 짐승〉이다. (12e)의 합성어 ‘blood relative’는 〈피 친척〉 즉 〈피를 나누는 친척〉이라는 뜻이고, ‘close relative (레 18:6)’로도 표기된다. 한국어 파생어인 ‘살붙이’는 〈살을 나누는 가족〉이며 ‘피붙이’라고도 한다. (12f)의 ‘hired servant’는 〈고용된 일꾼〉으로 수동의 뜻이 들어있다. 한국어 ‘폼꾼’은 〈폼을 파는 일꾼/사람〉이며, 능동의 뜻이 들어있다. (12g)의 ‘sabbath year’와 ‘안식년’은 〈안식하는 해〉로 의미가 거의 비슷하다. (12h)의 ‘synagogue leader’는 〈회당의 지도자〉이고, ‘회당장’은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12)의 예는 모



두 영어는 합성어이고 한국어는 파생어인 경우들이다.

영어는 합성어이나 한국어에서는 명사구로 대응되는 경우도 다음과 같이 소수 찾을 수 있었다.

(13) 영어 합성어	vs.	한국어 구
a. birthright		장자의 명분 (창 25:31)
<태어남><권리>		<firstborn><of> <cause>
b. chief cupbearer		술 맡은 관원장 (창 41:9)
<우두머리> <잔 담당자>		<liquor> <take charge of>
		<chief officer>
c.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 (마 5:9)
<평화><만드는 사람>		<peace> <making> <person>

(13a)의 ‘birthright’은 <태어날 때 갖는 권리>이나, ‘장자의 명분’은 <첫째가 갖는 명분(권리)>를 말한다. 영어에는 첫째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으나, 한국어 표현에는 ‘장자’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더 구체적이다. (13b)의 ‘chief cupbearer’는 <컵을 담당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며,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을 담당하는 가장 높은 관리>이다. 영어의 ‘cup’은 환유적 표현으로 마시는 것을 통칭하고 있다. (13c)에서 ‘peacemaker’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뜻을 갖으며 합성어이다. 한국어 ‘화평케 하는 자’는 명사구이다.

이상으로 형태론적인 면에서 영어와 한국어 어휘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단일어와 단일어의 대응이 가장 많은 편이었고, 그 외에 다양한 대응이 있었다. 영어 단일어에 한국어 복합어가 대응되는 경우가 반대의 경우보다 조금 많았다. 그리고 각 언어의 형태론적 특성이 어휘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 IV. 합성어의 개념·의미론적 비교

본 장에서는 성경에 나온 영어 합성어들과 한국어 합성어들을 비교하면서 의미개념구조가 유사한지 혹은 상이한지의 여부를 보려 한다. 합성어는 둘 이상의 단어를 기반으로 생성되었으므로 동기화(motivated)되었다고 하며, 그것의 의미를 단어들보다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1. 유사한 개념화

하나의 대상물을 영어와 한국어에서 유사하게 개념화하고 기호화한 용례들을 다음의 (14)에서 보자.

#### (14) 매우 유사한 개념화

영어 합성어	vs.	한국어 합성어
a. gold chain		금사슬 (창 41:42)
〈금〉 〈사슬/연쇄〉		〈gold〉 〈chain〉
b. heavenly hosts		천군 <sup>20)</sup> (시 103:21)
〈하늘의〉 〈군대복수〉		〈heaven〉 〈army〉
c. the Holy Spirit		성령 (마 1:18)
〈거룩한〉 〈영〉		〈holy〉 〈spirit/ghost〉
d. leather belt		가죽 띠 (마 3:4)
〈가죽〉 〈허리띠〉		〈leather〉 〈band〉

20) ‘천군’은 신고전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天’은 중국어에서는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단어로 간주되나, 한국어에서는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e. mustard seed	겨자씨 (마 13:31)
<겨자> <씨/씨앗>	<mustard> <seed>
f. signet ring	인장반지 (렘 22:24)
<도장/인장> <반지>	<seal> <ring>

(14a)의 ‘gold chain’과 ‘금사슬’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14b)의 영어 표현에는 복수형 ‘hosts’가 사용되었다. 한국어 ‘천군’은 <하늘 군대>로서 집합체이다. (14c)에서 영어 ‘the Holy Spirit’은 <거룩한 영>이란 뜻의 합성어이며, 유일한 것을 나타내고자 정관사 ‘the’를 항상 붙이며 첫자를 대문자로 쓴다. 한국어 ‘성령’도 동일한 뜻을 갖고 있다. (14d)의 ‘leather belt’는 ‘가죽 띠’로 대응되는데, ‘leather’와 ‘가죽’은 동일하고 둘째 성분의 의미도 유사하다. (14e)의 ‘mustard seed’는 한국어에서 ‘겨자씨’로 되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의미가 유사하다. (14f)의 ‘signet ring’은 <도장반지>이며, ‘인장반지’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처럼 (14)는 영어와 한국어 합성어가 의미상 다른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다음의 (15)는 (14)보다 유사한 정도가 조금 떨어지는 예들이다.

(15) 유사한 개념화

영어 합성어	vs.	한국어 합성어
a. breast-plate		호심경(護心鏡) (엿 6:14)
<가슴>-<판>		<protect> <breast/heart>
		<mirror/metal>
b. city gate		성문 (행 9:24)
<도시><문>		<castle> <door/gate>

c. eternal life	영생(永生) (요 3:16)
〈영원한〉 〈삶/생명〉	〈긴/장구한〉〈살다/삶〉
d. flaming sword	불 칼 (창 3:24)
〈불타는〉 〈칼〉	〈fire〉 〈sword〉
e. footstool	발등상 (행 7:49)
〈발〉〈상(床)〉	〈the top side of the foot〉 〈table〉
f. grapevine	포도나무 (약 3:12)
〈포도〉〈덩굴/포도나무〉	〈grape〉〈tree〉
g. innkeeper	주막 주인 (눅 10:35)
〈여관〉〈지키는 사람〉	〈inn〉 〈owner〉
h. millstone	연자 멧돌 (눅 17:2)
〈멧돌/방앗간〉〈돌〉	〈beast-worked〉〈millstone〉
i. morning stars	새벽별들 (욘 3:9)
〈아침〉 〈별복수〉	〈early morning〉 〈star복수〉

(15a)의 영어 ‘breast-plate’는 〈가슴에 대는 판〉으로 비교적 쉽게 이해된다. 이에 비해 ‘호심경’은 〈가슴을 지키는 금속<sup>21)</sup>〉이란 뜻인데 한자를 모르면 뜻을 알기 어렵다. 개역 성경에서는 ‘흉배’라고 하여 영어 표현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15b)의 ‘city gate’는 〈도시의 문〉을 뜻하며 ‘성문’은 〈성의 문〉을 뜻한다. ‘도시’와 ‘성’이란 약간의 차이가 있다. (15c)의 ‘eternal life’은 〈영원한 삶〉이다. ‘영생’의 문자적 의미는 〈긴 삶〉이나 결국 〈영원한 삶〉을 뜻한다. (15d)의 ‘flaming sword’에는 현재분사 어미

21) 여기서 ‘거울’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구리나 철 등의 금속물체로 갑옷에 사용된 재료를 가리킨다.

인 ‘-ing’가 있어서 지금 불타고 있는 것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한국어 ‘불 칼’은 <불로된 칼>로서 영어 표현만큼의 현장감은 없다. 이는 현재분사인 ‘-ing’가 들어 있는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개역 성경에서는 ‘화염검(火焰劍)’이라 하였는데, 이때의 ‘화염’은 ‘불꽃’을 가리킨다. (15e)에서 ‘footstool’은 <발을 올려놓는 가구>이다. ‘발등상’은 시편 110:1에서는 ‘발판’이라고도 하는데, ‘발등’은 <발의 윗부분>을 가리킨다. 발아래에 놓는 의자와 발등에 놓는 의자라는 면에서 개념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어 ‘발등상’이라는 용어는 입식문화가 아닌 좌식문화생활을 많이 하는 한국에서 이러한 가구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5f)에서 ‘grapevine’은 ‘vine’으로 줄여 사용하기도 한다. ‘grape’와 ‘포도’는 동일하나, <덩굴>과 <나무>부분이 조금 다르다. (15g)의 ‘innkeeper’는 ‘inn’과 ‘keeper’가 합쳐진 합성어로, ‘keeper’는 동사 ‘keep’과 사람을 뜻하는 명사어미 ‘-er’가 결합하였다. 한국어 ‘주막 주인’은 현대어로는 ‘여관 주인’이다. <여관을 지키는 사람>과 <여관 주인>은 앞 구성성분인 ‘여관’은 같고 둘째 부분이 <지키는 사람>과 <주인>이라는 면에서 조금 다르다. (15h)의 ‘millstone’은 <맷돌>을 가리키나, 한국어 ‘연자 맷돌’은 <말이나 소가 절구 위에 있는 돌을 끌어서 돌려 곡식을 빻도록 만든 맷돌>로 ‘맷돌’의 한 종류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5i)의 영어 표현 ‘morning stars’는 <아침 별들>이고, 한국어는 ‘새벽 별들’이다. ‘새벽’은 ‘이른 아침’ 정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14-15)의 예는 영어와 한국어 합성어가 의미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다. 한국어권과 영어권의 개념화 양상이 큰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 2. 상이한 개념화

동일한 대상물을 언어마다 다르게 강조하는 합성어들을 본 절에서 살펴 피려 한다. 하나의 대상물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영어권 화자와 한국어권 화자는 각기 다른 시각에서 다른 특징을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선택하여 개념화하고 기호화하기도 한다. 그 결과 (16)의 합성어들이 생성되었다.

### (16) 상이한 개념화

영어	vs.	한국어
a. cornerstone <sup>22)</sup>		기춑돌 (사 28:16)
〈모서리〉〈돌〉		〈foundation〉〈stone〉
b. good news		복음(福音) (마 4:23)
〈좋은〉〈뉴스/소식〉		〈복/복된〉〈소리〉
c. nose ring		코걸이 (창 24:30)
〈코〉〈반지〉		〈nose〉〈hook〉
d. rainbow		무지개 (창 9:14)
〈비〉〈구부러진 것/활〉		〈water〉〈arched small door〉
e. wineskin		가죽 부대 (눅 5:37)
〈포도주〉〈피부/가죽〉		〈leather〉〈sack〉

(16a)처럼 성경에는 돌이나 반석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영어 ‘corner stone’은 〈모서리/모퉁이에 있는 돌〉이다. 한국어 ‘기춑돌’은 〈기초가 되

---

22) ‘corner stone’은 ‘모퉁잇돌 (사 19:13, 엡 2:20, 벰전 2:6)’ 또는 ‘(모퉁이의) 머릿돌 (눅 20:17)’로도 대응된다. ‘corner stone’과 ‘모퉁잇돌’의 경우 개념화는 매우 유사하다. 현재의 표준어는 ‘주춑돌’로 되어 있고, ‘초석’이라고도 한다.

는 돌)이며, 둘 다 건물을 지을 때 꼭 필요하다. 그러나 <모서리에 있는 돌>과 <기초가 되는 돌>은 약간의 개념적 차이를 보인다. (16b)의 ‘good news’는 <좋은 뉴스/소식>이고, ‘복음’의 문자적인 뜻은 <복된 소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쁜 소식>이다. (16c)에서 ‘nose ring’은 <코에 끼는 반지>이고, ‘코걸이’는 <코에 거는 것>이다. 코에 사용하는 것은 분명하나, 표현상 <반지>와 <거는 것>이라는 차이를 보인다. (16d)의 ‘무지개’는 ‘물’과 ‘지개’가 합쳐진 것이다<sup>23)</sup>. ‘물’에서 ㄹ이 탈락하여 ‘무’가 되었고, ‘지개’는 ‘지개’에서 온 것으로 윗부분이 아치모양을 한 작은 문을 말하였으나 요즈음에는 쓰이지 않는 용어이다. 결국 <비 온 후 생기는 둥근 아치>라는 뜻이다. 이에 비해 ‘rainbow’는 <비>와 <구부러진 모양 혹은 활>이 합쳐진 것이다. 많은 차이는 아니나, 비와 물이 대조되고, 구부러진 것과 둥근 아치가 대조된다. (16e)의 영어 ‘wineskin’은 <포도주 가죽>의 뜻으로 부대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한국어 ‘가죽 부대’는 포도주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16)의 예들은 유사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념적 차이가 (14-15)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들이다. 상이한 개념화의 예는 많지 않았으나 이것을 중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두 언어 간에 동일 대상물을 상이하게 명명하는 것은 동일 대상물의 여러 특성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다르게 보는 개념화 과정이 있음을 보이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화과정을 거쳐 그 핵심특성이 합성어로 기호화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합성어들의 유사성과 상이성은 절대적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즉 유사성과 상이성의 기준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두 가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14)와 (15)의 합성어가 영어와 한국어에서 유사한 것은 두 언어의 화자들이 거의 동일

23) 무지개의 어원은 <http://kang.chungbuk.ac.kr/eowon/7638>을 참고할 것.

한 인지(인식)를 하고 있음을 뜻한다. 동일한 대상물을 개념화 및 기호화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거의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둘째, (16)처럼 하나의 대상물을 다르게 표기하는 것은 대상물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중시하는 것이 언어권별로 다름을 말한다. 이렇게 다른 특성을 선택하여 기호화하는 것은 명칭론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영어 합성어와 한국어의 합성어를 비교하여 볼 때, 명명하는 방식의 유사성과 상이성이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면이 매우 많았다.

### 3. 성경에만 등장하는 합성어

본 절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으면서 성경에 주로 등장하는 독특한 합성어들을 소개하려 한다.

#### (17) 한글성경에 나온 독특한 합성어

한국어	vs.	영어
a. 가시관 (요 19:5)		the crown of thorns
<thorn><crown>		<그> <왕관> <~의> <가시 <sub>복수</sub> >
b. 불못 (계 20:14)		the lake of fire
<fire><pond>		<그> <호수> <~의> <불>
c. 생명 나무 (창 3:22)		the tree of life
<life><tree>		<그> <나무> <~의> <생명>
d. 생명책 (계 20:15)		the book of life
<life><book>		<그> <책> <~의> <생명/삶>
e. 소금 기둥 (창 19:26)		a pillar of salt
<salt><pillar>		<한> <기둥> <~의> <소금>
f. 피 남편 (출 4:25)		a bridegroom of blood



〈blood〉〈husband〉	〈한〉 〈신랑〉 〈~의〉 〈피〉
g. 피밭 (마 27:8)	the Field of Blood
〈blood〉〈field〉	〈그〉 〈밭/벌판〉 〈~의〉 〈피〉
h. 천지 (창 1:1)	the heavens and the earth
〈heaven〉〈earth〉	〈그〉 〈하늘복수〉 〈그리고〉 〈그〉 〈지구〉

(17)은 우연히도 한국어는 합성어이고 영어는 속격의 ‘of’가 포함된 명사구이다<sup>24)</sup>. (17a)의 예수께서 쓰신 ‘가시관’의 영어 표현은 복수형인 ‘가시들’과 왕이 쓰는 관인 ‘왕관’으로 인해 의미가 더 자세한 편이다. (17b)의 ‘불못’은 일반 한국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합성어로서, 지옥의 처절함을 개념화한 어휘이다. 한국어 ‘불못’은 〈불연못〉을 뜻하며, 영어 ‘the lake of fire’는 〈불의 호수〉이다. 작은 〈연못〉과 그보다 넓은 〈호수〉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것의 의미가 확대되면 ‘불바다’가 된다. (17c)의 한국어 ‘생명 나무’는 합성어이나, 그 대응형인 ‘the tree of life’는 〈생명의 나무〉라는 뜻이고 명사구이다. 네이버사전과 다음사전에서는 ‘생명나무’를 붙여 쓰고 있다. (17d)의 한국어 ‘생명책’은 영어로 ‘the book of life’ 즉 〈생명의 책〉이다. (17e)에서 두 표현의 의미는 거의 동등하다. 출애굽기 13:21의 ‘불 기둥(a pillar of fire)’과 ‘구름 기둥(a pillar of cloud)’도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17f)의 ‘피 남편’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다. 영어 ‘a bridegroom of blood’는 〈피의 신랑〉이며 부정관사 ‘a’로 표기하여 앞의 예들과 달리 유

24) 인지언어학에서는 단어가 적을수록 강렬하고 직접적이고, ‘of’ 등이 첨가되어 단어가 많아질수록 간접적이고 예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도상성에 관하여 다음을 참고할 것. John Haiman, “Iconic and Economic Motivation,” *Language* vol. 59 (1983): 781-3.

일하지는 않음을 보이고 있다. (17g)의 ‘피밭’은 제자였던 유다가 스승인 예수를 팔면서 받았던 은 30으로 사게 된 땅을 가리킨다. 영어 ‘the Field of Blood’는 <피의 밭>이다. (17h)에서 ‘천지’의 문자적인 뜻은 <하늘과 땅>이나 <온 세상>이라는 의미로 확대되어 쓰이기도 한다. 그 대응형인 ‘the heavens and the earth’의 앞부분은 복수형 어미 -s가 첨가되어 <하늘들>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여러 하늘이 있음을 암시한다.

다음의 (18)은 영어성경에 등장하는 독특한 세 단어 합성어로 N-Ved N과 N-Ving N형태를 갖고 있다.

(18) 영어성경에 나온 세 단어 합성어

- |                       |                            |
|-----------------------|----------------------------|
| a. double-edged sword | 두 날 가진 칼 (잠 5:4)           |
| <둘>-<날이 세워진> <칼>      | <two> <edge> <had> <sword> |
| b. gold-covered ark   | 금으로 싸 언약궤 (히 9:4)          |
| <금>-<덮인> <궤>          | <by gold> <wrapped>        |
| <covenant ark>        |                            |
| c. life-giving spirit | 살려주는 영 (고전 15:45)          |
| <생명>-<주는> <영>         | <saving/rescuing> <spirit> |
| d. seed-bearing plant | 씨 맺는 채소 (창 1:29)           |
| <씨>-<맺는> <식물>         | <seed> <bearing>           |
|                       | <vegetable>                |

(18)의 예를 보면 영어는 세 단어짜리 합성어로 표기하나, 한국어에서는 의미를 풀어 기술한 명사구로 대응되고 있다. (18a)의 ‘double-edged sword’는 <양면에 날이 세워진 칼>이다. 이는 한국어에서 명사구 ‘두 날 가진 칼’로 대응된다. 영어의 ‘-ed’ 부분은 수동의 뜻이 들어있으나, 한국

어에서는 수동의 뜻을 어휘 속에 잘 표현하지 않는다. (18b)의 ‘gold-covered ark’는 <금으로 덮여있는 궤>라는 뜻이다. 한국어 대응형 ‘금으로 싼 언약궤’는 명사구로 풀어서 표기 되었다. ‘-ed’ 부분을 자세히 번역하면 ‘덮여있게 된’으로 수동의 뜻이 들어있으나, 한국어 ‘금으로 싼 언약궤’에는 수동의 뜻이 없다. (18c)의 영어 ‘life-giving spirit’은 <생명을 주는 영>이다. 한국어는 ‘살려주는 영’으로 대응된다. (18d)의 ‘seed-bearing plants’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주신 식물을 말한다. 한국어는 명사구 형태의 ‘씨 맺는 채소’라 하여 영어의 ‘식물’보다는 더 구체적이다. ‘식물’은 채소와 과일 등을 포함한 상위어이다.

지금까지 본 절에서 한글성경과 영어성경에 등장하는 독특한 합성어들을 정리하였다. 이처럼 동일한 대상물을 단어인 합성어로 표기하기도 하고, 구로서 표기하기도 한다. 그리고 의미상 강조점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제 IV 장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영어합성어와 한국어합성어를 개념·의미론적인 면에서 대조하였다. 동일한 대상물이나 현상을 유사하게 개념화한 경우가 많았으나, 상이하게 개념화한 경우도 소수 존재하였다.

## V.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영어성경과 한글성경의 어휘를 언어학적 입장에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형태·구조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대응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단일어가 단일어로, 단일어가 복합어로, 혹은 복합어가 복합어로 대응되는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 단일어가 구로 대응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각 언어의 형태론적 특성이 어휘에 영향을 미침을 알게 되었다. 둘째, 개념·의미론적인 면에서 유사성과 상이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양 언어가 합성어로 대응되는 경우, 그 두 합성어의 의미가 유사한 경

우가 많았으나 상이한 경우도 존재하였다. 특히 두 언어 간에 상이한 합성어가 존재하는 것은 각 언어사용자들이 동일한 대상물의 여러 특성 중에 강조점이 다름을 보이는 것이다. 합성어를 포함한 모든 단어는 이러한 개념화과정을 거쳐 기호화된 것이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원어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성경 본래의 의미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원어들을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차라리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영어성경과 한글성경 만이라도 비교하며 읽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례로 한글성경의 ‘낙헌제’와 ‘소제’라는 용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영어성경의 ‘freewill offering’과 ‘grain offering’라는 표현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두 성경의 상이한 합성어들은 이 둘이 합쳐져 성경 본래의 뜻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서 본 논문을 시도되었다. 그리고 차 후에 연구할 과제로는 한 단어가 원어 성경에서 영어성경과 한글성경으로 어떻게 대응되는지 심도 깊게 연구하는 것과, 단어가 아닌 관용어와 구로 대응되는 경우 등으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 1. 단행본

- 영어성경: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NIV)*. Biblica, 2011.  
「개역개정 NIV 한영해설성경」. 서울: 아가페출판사, 2015.
- 한글성경: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4판」. 대한성서공회. 2005. 「개역개정 NIV 한영해설성경」. 서울: 아가페출판사, 2015.
- 김봉주. 「개념학: 의미론의 기초」. 서울: 한신문화사, 1988.
- 김영석. 「영어형태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0.
- 김일병. 「국어 합성어 연구」. 서울: 역락, 2000.
- 노명현. 「의미론 개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2.
- 이현근. “명칭론(Onomasiology)과 어의론(Semasiology).” 임지룡 외 38인. 「인지언어학 탐구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문화사, 2019: 699-722.
- 최형용. 「한국어 의미 관계 형태론」. 서울: 역락, 2018.
- Dirven, René and Marjolijn Verspoor. *Cognitive Exploration of Language and Linguistics*. 2nd ed. Amsterdam: John Benjamins, 2004.
- Geeraerts, Dirk. *Diachronic Prototype Seman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Lakoff, George. *Woma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Langacker, Ronald W.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 2. 정기간행물

- 이보림. “성경 어휘의 번역과 등가성에 관한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9권 3호 (2018): 35-56.
- Bauer, Laurie. “Is there a Class of Neoclassical Compounds, and if so is it

322 복음과 실천(제65집, 2020년 봄)

Productive?" *Linguistics* vol. 36 (1998): 403-22.

Haiman, John. "Iconic and Economic Motivation." *Language* vol. 59 (1983):  
781-819.

### 3. 기타 자료

무지개 어원. <http://kang.chungbuk.ac.kr/eowon/7638>. 2019년 8월 7일 접속.